

I. 서론: 인간 교사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인간이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를 추적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겠지만, 교육은 삶으로부터 추상한 지식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 이해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는 단지 교과목별 지식을 다루는 데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은 단일한 정보로서의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를 지나 다층적인 문제에 대해 가치 판단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습득된 교과 지식이 학습자의 삶에 내면화되어 그가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면 그때에야 비로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교사의 개입, 즉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히 AI 시대가 도래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가르침’이 얼마만큼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양적인 측면에서 AI의 정보처리 능력이 인간보다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이다. 만일 ‘가르침’이 단순히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인간 교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계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도모함에 있다면 ‘가르침’은 단일한 지식 정보 전달 이상의 의미를 지녀야 할 것이다.

AI와 구별되는 인간 존재의 당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한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는 신본주의 사상 속에서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중세는 종교가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지배하고 억압한 암흑기로 평가되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본래 의미를 진지하게 구현하고자 한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간의 본래 의미를 분명히 하여 그 존재의 당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절실했던 지금 시대에서 중세 사상에서 주장하는 신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그 근거 내용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별히, 중세 사상가들 중 토마스 아퀴나스를 통해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할 것인데, 그는 아리스토

텔레스의 영향을 받아 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인간 이성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현실에서의 삶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의 삶의 가능성은 불완전하더라도 완전한 현실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서의 삶을 긍정하는 단서가 된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Summa Theologiae*)』 제 117문제 제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아퀴나스는 지식의 능동적인 성질 때문에 가르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식의 원인이 되도록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인간의 가르침은 일종의 외적인 기술로서 지식의 주원인인 지성의 내재적 빛 다음에 작용한다. 인간의 지식 획득 과정에서 가르침은 외적 기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퀴나스는 인간 교사란 가능태에 있는 학습자를 이끄는 최상의 현실태라고 말한다. 이는 교사가 신처럼 완전한 ‘현실태’(actuality)이지 못하지만 ‘가능태’(potentiality)에서 최상의 현실태로 나아가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김무길, 2007). 이를 통해 이성을 통한 삶이 단지 세계에 대한 불완전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세계를 관조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는 ‘과정적 삶’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교수의 패러독스, 즉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이 알 경우 이미 갖고 있는 지식에 의한 것이므로 교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학생이 모를 경우 학생은 교사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역설을 아퀴나스의 가르침 개념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아퀴나스의 가르침의 의미 이해를 바탕으로 AI 시대의 교육에 아퀴나스의 교육 개념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논하고자 한다.

II. 아퀴나스의 가르침의 의미 이해

1. 가르침과 지식의 획득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의 지식은 지성의 내재적 빛과 인간 교사의 가르침에 의해 획득된다. 먼저 인간은 지성의 내재적 빛을 통해 모든 지식의 보편 원리들을 자연적으로 획득한 뒤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그러한 지식의 보편원리를 특정 대상에 적용하여 지식을 얻는다. 학생은 가르침을 통해 이미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에 대한 삶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가르침의 작용 원리는 지성의 내재적 빛의 방식을 모방한다(김정국, 2010, 137). 따라서, 가르침의 원리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지식 획득 과정에 있어 주 작용자인 지성의 내재적 빛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성의 내재적 빛이라는 지식의 보편 원리와 달리 가르침이 개입할 때 학생은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이는 지성의 내재적 빛을 통해 이미 가지고

있는 보편 원리를 개별 대상들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이다(김정국, 2010, 137).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지성의 내재적 빛이 개별 대상들에게 적용되면 이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진리는 동일하더라도 대상마다의 감각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자신의 앎으로 획득하여 극복해가는 과정이 곧 앎이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모르는 것에 대한 앎을 이끄는 가르침에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학생을 적절히 보조하는 것인데 지성의 내재적 빛보다 덜 보편적인 명제를 제시하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 해당할 수 있다(김정국, 2010, 139). 두 번째는 원리에서 결론을 추론하는 논증을 통해 그에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분석론 후서」에서 ‘증명은 지식을 산출하는 삼단논법이다.’를 인용하면서, 원리와 결론의 관련성에 대한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학생의 지성을 강화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문제에 있어서 아퀴나스는 그 가르침의 내용이 단순 교과지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르치는 내용 자체 보다는 주어진 지식에 대해 지성의 내재적 빛에 근간한 적절한 판단을 강조하고 그 지식을 논증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퀴나스가 가르침을 통해 가능한 지식이 단지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가치판단까지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가르침과 현실태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제8권을 인용하면서, 교사는 학생을 가능태(potentiality)에서 현실태(actuality)로 이끌면서 학생의 지식의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김정국, 2010, 135). 병이 의술을 통해서 낫기도 하지만 자연적 치유 능력에 의해 완쾌할 수 있듯이, 앎 또한 가르침 뿐만 아니라 지성의 내재적 빛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가르침은 앎의 독자적인 원인은 아니다. 가르침은 지성의 내재적 빛을 보조하는 일종의 기술로서 지식 획득에 작용한다. 인간 교사는 가르침을 통해 가능태로 있는 학습자에게 개입하여 지식 획득을 촉진하는 더 나은 현실태 역할을 수행한다(김무길, 2007).

아퀴나스에게 가르침이란 신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완전한 현실태인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가능태에서 최상의 현실태로 점차 나아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아감은 단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단계를 거쳐가며 점차 더 나은 현실태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무길(2007)은 학습자에게 상대적으로 완전한 현실태, 이른바 제1 현실성(first actuality)이 된 교사도 더 나은 현실태, 다시 말해 제2 현실성(second actuality)에 비추어보면 가능태임을 말한다. 이와 같이 최상의 현실태이면서도 더 나은 현

실성에 비추어보면 가능태라는 점에서 인간은 양자적 의미를 지니며, 신이 부여한 자율적 이성을 통해 가능태에서 다수의 현실태를 거쳐가는 삶의 과정은 신적 지성에 부합하는 도정의 길이다.

3. 교수의 패러독스

만일, 교사의 가르침을 학생이 이해한다면 이는 학생이 이미 그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의 가르침을 학생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가르침을 통한 지식 획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르침의 불가능성에 대해 논하는 교수의 패러독스와 관련하여 아퀴나스는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특정적이고 정확히는 모르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한다(김정국, 2010, 141). 학생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교사의 가르침은 그 자체로 신의 온전함에 부합하는 지식이 아니더라도 최상의 현실태로서 학생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가능태인 학생에게 교사란 최상의 현실태이면서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이다. 지식 획득에 있어 지성의 내재적 원리도 보편 원리로서 작용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 교사도 진리의 ‘완전한 구현체’로서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김무길, 2007).

III. 아퀴나스의 교육 개념이 AI 시대의 교육에 주는 함의

아퀴나스에 의하면 인간 교사의 가르침은 지성의 내재적 빛이라는 보편 원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르는 것에 대한 지식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보편 원리가 개별 대상에게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감각상은 학습자로 하여금 기존의 삶과 다른 차이를 인식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르침을 수행하는 교사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현실태로서 가능태인 학습자를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인도한다. 교사가 전하는 지식 또한 신적 원리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기 보다는 진리에 가깝지만 여전히 가능태적인 성격을 지닌 채로 능동 지성을 자극한다. 아퀴나스가 말하는 가르침은 가능태이면서 현실태를 지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양자적인 인간관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인간과 그가 머무는 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학습자를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이끄는 과정으로서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 전달에 그치는 삶을 것이다. 가능태와 현실태를 교차하며 촘촘한 단계를 거쳐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지식 획득의 과정은 숙고와 비판적 사고와 같은 가치 판단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AI가 가능태이면서 현실태일 수 있는 이중적 존재로서 교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AI에게는 축적된 시간이 없다. 인간은 단지 특정 시공간에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세대의 모든 내용이 누적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교사는 가능태와 현실태의 사이에 있는 존재이면서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나아가는 존재로서 가르침을 수행한다. 인간과 달리 축적된 시간의 내용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AI가 주어진 지식을 계기로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가르침을 도모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중심으로 ‘가르침’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러한 아퀴나스의 교육 개념이 AI 시대에 함의하는 바에 대해 다루고자 하였다. 지성의 내재적 빛인 보편 원리와 가르침이라는 외적 원리 모두를 통해 지식 획득이 가능하다는 아퀴나스의 관점을 통해 그가 현실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긍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의 가르침이란 학습자를 가능태에서 현실태로 점층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아퀴나스의 교육관은 우리의 완전하지 않은 현재의 지식이 신과 단절된 것이 아닌 신을 지향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가르침은 가능태이면서 현실태일 수 있는 이중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점에서 AI 교사가 가지게 될 한계를 시사한다. 특히, 인간과 달리 축적된 시간을 내재화하지 않은 AI가 가능태와 현실태가 교차하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쉬지 않고 변경해 나아가는 인간의 복잡성과 진취성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무길(2007), 『교사상에 대한 이견: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아시아 교육연구 8권 2호, 43-66쪽
- 박주병(2013), 『학습의 개념과 교사 - 플라톤의 ‘회상’, 아퀴나스의 관조, 루소의 경험』, 인문과학연구 37권, 437-459쪽
- 유재봉(2004), 『종교적 자유교육론 연구 -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제26권 제2호, 149-175쪽
- 이경재(2011), 『‘가르침’의 의미를 중심으로 본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육관』, 카톨릭철학 제17호 【특집】 카톨릭사상 안에 나타난 교육관과 그 실현
- 조미옥(2005),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학과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제27집 27호 341-363쪽
- 최은순(2018), 『중세 유럽 교사의 삶과 교육』, 교육철학연구 제40권 제4호, 191-213쪽
- 홍지희(2017), 『인격(personality)의 개념과 교육: 아퀴나스와 마리탱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제31권 제1호, 185-208쪽
- Thomas Aquinas, *Summa Theologiae*, 김정국 역(2010), 『신학대전』, 서울: 바오로딸, 2010.